



추모예식 순서지

추모예식의 의미

기독교에서는 제사의 형식을 대신하여 추모예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생전의 은덕과 뜻을 기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가족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믿음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추모예식의 준비

예배상 위에 고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촛불이나 꽃으로 장식합니다.
고인의 사진 앞에는 성경을 놓습니다. (고인에게서 사용하신 성경이면 더 좋습니다.)
가족 대표 한 사람을 정하여 아래 예식 순서에 따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한밭제일장로교회
HANBATJEIL PRESBYTERIAN CHURCH

추 모 예 식 순 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이 시간 고(故) 000 (아버지, 어머니, 장로, 권사, 집사 등)의 00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추모예식을 시작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같이

1.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2. 하늘 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뵈을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3.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뵈오리
4.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 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 버리리

(후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오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대표기도

말은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음을 통하여 대대손손 이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 또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 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 히브리서 12장 14-16, 28절 ----- **말은이**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사

추 모 사 ----- **말은이**

〈고인의 유언, 유훈, 행적을 회고하면서 서로 교훈을 나눕니다.〉

설 교 -----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 **말은이**

〈후면 설교문 참조〉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민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는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의 교제를 가집니다.〉

설교문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오늘 추모 예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천국에 가신 사랑하는 고인의 신앙을 추억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고인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거룩하고, 화평한 인생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먼저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서 '거룩'은 구별된 시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기 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는 거룩하지 못했던 인물의 예로 '에서'를 듭니다.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했던 시선을 세 속적인 가치관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 이후에 성도는 반드시 화평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는 반드시 평화가 따르게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거룩함과 화평함을 소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시고, 이어지는 28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계신 하늘 도성에 들어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님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곳은 하늘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권면한 대로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결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 것,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고인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남은 인생의 여정 동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갑시다.